

힝클리 회장의 세계 순방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7월과 8월에 세계를 여행하며 일곱 개 도시에서 회원들을 만나고 나이지리아 아바에서는 성전을 헌납했다. 이 여행으로 교회 회장으로서는 여러 곳을 방문한 그의 여행 기록에 수천 킬로미터가 더해졌다.

힝클리 회장이 회원들과 가진 모임은 공항 활주로에 모인 소규모 그룹에서 문화 행사에 참여한 수천명의 후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에서 비행기 급유를 위해 잠시 머무르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200여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힝클리 회장의 이번 방문은 교회 회장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이 훌륭한 장소에서 사업을 이룩하십시오.”라고 힝클리 회장은 그곳에 모인 회원들에게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곳에 모인 회원들을 보면서

50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소규모 성도들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성도들 수가 이제는 수천에 이르고 있고, 장래에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러시아 성도들에게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그들이 참되고 충실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한국, 서울

힝클리 회장은 한국의 서울에서 지역 대회를 위해 모인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모임은 전국으로, 또한 미국과 호주의 여러 곳으로 중계되었다.

힝클리 회장은 과거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여행 중에 있었던 작은 사고로 인해 대회 전날 저녁에 1,500여 명의 성인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문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축복을 이 백성에게 부여하셨으며,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와 복지는 이 나라의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전쟁과 기타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타이완, 타이페이 및 중국, 홍콩

타이완의 타이페이와 중국의 홍콩을 방문하는 동안 힝클리 회장은 회원들을 만났으며, 두 도시에서 교회 사무실용 건물을 헌납했다. 두 건물에는 예배실, 공과실, 교회 사무실이 포함되어 있다.

홍콩에서 회원들과 가진 모임에서 그는 다층 복합 건물의 일부인 중국 홍콩 성전에 관해 영감을 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그 형태가 뉴욕 맨해튼 성전에 다시 적용되었다고 말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힝클리 회장

사진 촬영: 그레그 윌, Church News

나이지리아, 아바

헝클리 회장이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헌납 전날인 8월 6일 나이지리아에 도착했을 때, 후기 성도들은 성전 부지까지 가는 길에 줄지어 서서 그를 맞았다. 그들은 또한 선지자의 도착과 새로운 성전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 행사인 “기쁨의 날”을 위해 공연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거의 1,500여 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거의 1년 동안 음악과 무용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준비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다섯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부모들, 그리고 선지자를 포함하여 청중들은 프로그램을 위해 의자에 앉거나 성전 아래쪽의 비탈진 언덕에 서 있었다.

문화 행사 다음날, 헝클리 회장은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했다. 성전은 아프리카에서 운영되는 세 번째 성전이며, 전세계적으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121 번째 성전이다.(아래의 첨부 기사 참조)

160만 킬로미터

여행 동안에 헝클리 회장은 또한 인도의 델리,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잠시 기차

하는 동안 소규모의 회원들을 만났다. 그는 회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고, 가족을 보살피고 부양하며, 가족에게 영적인 힘을 줄” 것을 당부했다.

헝클리 회장은 1995년 3월에 교회 회장이 된 이래로 수없이 많은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16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다. ■

Church News 기사 제공



사모아 아피아 신축 성전이 2005년 9월 4일에 헌납되었다.

회원들이 성전 헌납과 기공식을 기념하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

화 재로 원래의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소실된 이후 회원들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년을 기다렸다. 원래의

성전이 서 있던 부지에 새로운 성전이 헌납된 2005년 9월 4일이 되어서야 그 기다림은 끝이 났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은 현재 1,486평

방미터가 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 성전은 1983년에 지어진 과거의 성전보다 약간 큰 규모이다.

집 가까이 있는 성전에 20년간 참석했던 사모아 회원들과 인근 지역 회원들은 이년 동안 보다 멀리 떨어진 성전에 참석하며 감사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사모아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동안 회원들은 760킬로미터 떨어진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제는 회원들이 새로운 성전이 있는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라고 사모아의 교회 공보 책임자인 올레 바야올루 형제는 말했다. “회원들은 자신들의 가족 역사를 작성하기를 더욱더 열망하고 있으며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이 2005년 8월 28일에 헌납되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122번째 성전이 되었다. 헌납되기 전에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다. 뉴포트비치 스테이크의 웨더포드 클레이튼 회장은 많은 방

문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저는 성전이 우리에게 더 없이 성스러운 건물이 되는 이유를 그들이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클레이 큰 회장은 말했다.

77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유타 주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후기 성도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주이다.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일곱 번째 성전으로 50,000여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5년 8월 7일에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했다. 이 성전은 오그보르 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성전 건축의 일환으로 교회는

강을 건너는 다리와 성전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했다.

헌납 행사 동안 힝클리 회장은 가나 아크라 성전이 2004년에 헌납된 이래로 아프리카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이 성전도 회원들에게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

힝클리 회장이 아이다호 렉스버그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를 한 이후로 19 개월을 기다린 끝에 8,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7월 30일에 거행된 성전 기공식에 참석했다.

“회원들과 심지어는 일부 비회원들마저도 이날이 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라고 렉스버그의 교

회 회원인 파렐 영 형제는 말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보이시와 아이다호폴스에서 운영 중인 성전과 더불어 아이다호에서 세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아이다호의 네번째 성전이 트윈폴스에 세워질 것이라고 2004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아이다호 렉스버그 성전은 그 지역의 17개 스테이크에서 이용하게 된다. 렉스버그의 성전은 또한 브리검 영-아이다호 대학교에 다니는 12,000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된다. ■

세상에 복음을 듣도록 권유하는 전도용 카드

월터 콜리, 교회 잡지

전 도용 카드가 약 10 여 년 전에 소개된 이후로 사용된 카드의 숫자와 이



사진 촬영: 그레그 힐, Church News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해 150만 매 이상의 전도용 카드를 인쇄했다.

를 통해 얻은 소개 수는 소리없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8월에 교회는 150만 매의 전도용 카드를 인쇄했으며, 이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소개하기 위해 카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나타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전도용 카드는 28개 언어로 교회의 모든 지역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카드는 회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카드를 통한 소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전도용 카드의 목적을 설명하며, 복음을 들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하고, 개인적이며, 부담스럽지 않은” 권유라고 설명했다. (“The Role of Members in

Conversion”, *Ensign*, 2003년 3월호, 55쪽) 회원들은 카드를 나누어 주며 다른 신앙을 지닌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몰몬경이나 *Joy to the World*(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는 *Finding Faith in Christ*(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DVD와 같은 무료 자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전도용 카드에 대한 반응은 종종 선교사 소개로 이어진다.

전도용 카드에 대한 개념은 1996년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카드 형태는 명함에서 접이식 인사말 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카드 개념이 미국에서 시험 사용되는 동안, 영국의 교회 공보 사무실은 언론 매체 캠페인을 위해 그곳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활용했다.

여러 가지로 세 가지 개념을 시험한 결과로 현재의 전도용 카드가 나오게 되었다.

전도용 카드는 포켓 사이즈로,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이다. 카드의 앞면에는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전화 번호, 교회 로고, 무료 자료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다.

1997년에 최초의 전도용 카드가 소개된 이래로 약간의 변경 사항이 있었다. 지금은 모든 전도용 카드 뒷면의 교회 로고 바로 아래에 웹사이트 주소 www.mormon.org가 인쇄되어 있다. 새로운 카드의 뒷면에는 또한 교회 회원들이 권유의 글과 함께 전자 우편 주소 또는 간단한 메시지를 적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이나 빈 줄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 회장단은 전도용 카드를 세계 곳곳에서 그들 지역 나름의 필요 사항에 맞게 수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선교사들은 선교사 토론에 맞추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그림이 든 그림 세트를 배부한다. 선교사들은 방문을 마칠 때마다 구도자들에게 그림 하나씩을 남겨 준다. 전시할 만한 미술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들을 집에 걸어 놓고 있다. 선교사들은 또한 회원들이나 구도자들의 집에서 그림을 본 다음에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회원들이 몰몬경이나 기타 무료 자료를 원하는, 절취선이 있는 전도용 카드를 활용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거나 몰몬경을 받으라고 권유한 회원들은 절취선을 따라 카드를 반으로 나누어 받은 친구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그 친구의 주소를 적어 선교사들에게 준다. 전화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서 이 카드들은 무료 자료를 배부하는 데 활용되었다.

전도용 카드는 그 과정에 선교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몰몬경이나 DVD를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전도용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회원들은 친구들에게 단순한 무료 자료가 아니라,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다.

전도용 카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온 전화는 콜 센터 또는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선교부로 전해진다. 초기 전화시 또는 세 번의 확인 전화 중 어느 한 통화에서 선교사는 전도용 카드 소지자와 대화를 시작한다. 이 선교사들은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대체로 “어떤 동기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게 되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통으로 전화를 건 사람들이 받게 될 메시지의 참됨에 대해 선교사들이 간증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

전도용 카드의 내용을 받아들여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관심과 신앙을 보이며, 부름을 받아 영으로 간증을 전하도록 성별된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된다. 이런

과정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훨씬 더 많이 참여시키고 더 빈번한 구도자 소개로 이어진다. 전화를 건 사람의 3분의 1 이상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무료 선물을 전해 주는 것과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락한다.

전도용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 배부 센터 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전임 선교사에게 연락한다. ■

그에게 올 것이며 그가 침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자신을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저는 마음속에서 평화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홀더 형제는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을 여전히 매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된 지하철역과 런던 거리에서의 순찰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

Church News, 2005년 7월 23일자에서 발췌

폭발 속에서도 의무를 다한 런던의 회원

새라 제인 워버, *Church News*

일 리엄 홀더는 영국이 2012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7월 6일 런던에서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런던의 거리들은 자축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경찰로서는 대혼란의 상황이었다.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홀더 형제는 다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혼란을 다루어야 했다. 테러리스트가 런던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가 보았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다. 사람들이 끔찍한 충격 속에서 올드게이트 지하철 역 밖으로 달려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부상을 당했고, 가족을 찾으며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던, 영국 캔터베리 스테이크 그레이브센드 워드 소속의 홀더 형제는 자신이 테러리스트의 공격 현장에 있던 최초의 비상 요원들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동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일이었거든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인간대 인간의 대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덜어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7월 7일에 런던의 지하철역 세 곳에서

계획적인 공격으로 폭탄이 터졌을 때 회원들이나 선교사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최소한 56명이 폭발시에 사망했고, 7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은 심하게 다쳤다. 폭발은 아침 혼잡 시간 동안 50초 내에 일어났다. 네 번째 폭탄은 57분 뒤 런던의 빨간색 이층 버스에서 폭발했다.

이번 테러리스트 공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런던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응하여 교회는 켄 리빙스턴 런던 시장과 영국 적십자사에 의해 시작된 희생자 기금을 모으기 위해 헌금하고 있다.

“그 사건을 회상할 때어야 비로소 테러에 대한 진정한 공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홀더 형제는 말했다. “그 순간에는 행해야 할 바를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침착을 유지하여 직업 의식을 발휘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 후 며칠 동안 홀더 형제는 추가 근무를 했다. 하지만 한적한 시간에 그는 수년 전 받았던 신권 축복을 기억했다. 축복에는 그가 직업에서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방향을 구하러

Mormon.org을 활용하여 복음을 나눔

온 라인 교회 자료의 활용은 회원들의 친구와 친지들이 교회에 관해 알도록 돕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복음 원리를 나누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공한다.

교회의 웹사이트는 목적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Lds.org와 provident-living.org는 회원들을 가르치고,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다. 영어로 제공되는 Familysearch.org는 방문자들이 자신들의 사망한 친척들을 검색하게 해준다. 23개 언어로 제공되는 Mormon.org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추구한다.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눌 때 회원들이 활용하는 주요 웹사이트가 바로 mormon.org이다.

Mormon.org는 회원들이 교회에 관한 이해에서 다양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도움을 준다. 회원들이 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이 교회 교리와 생활방



Mormon.org는 23개 언어로 제공되어 전세계에서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도록 돕고 있다.

식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001년 10월에 시작된 이후로 830만 명 이상의 방문자들이 이 웹사이트를 찾았다. 이 방문자들은 DVD나 물문경과 같은 미디어 자료를 20만 개 이상 요청했다. 4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더 많이 알고 싶어하여 선교사들에게 소개되었다.

복음을 소개함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단순한 표현으로 작성된, 411쪽에 이르는 Mormon.org의 교리 페이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믿음, 구원의 계획, 가족의 중요성, 인생의 목적을 설명한다. 각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와 관련된 주제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하이퍼링크를 갖고 있어, 방문자들에게 웹사이트를 살펴보는 수천 가지의 독특한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많이 찾는 다섯 표제는 다음과 같다. (1) Welcome (2) Frequently asked questions (3) Find information (4) I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 Christian church? (5) Frequently asked questions—beliefs and doctrines.

“이 웹사이트는 구도자들이 누군가와 일대일로 이야기하지 않고도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회원에게 묻거나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첫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Mormon.org는] 제가 진리를 찾

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내자가 되어 왔습니다.”라고 사이트 방문자인 티파니는 말했다.

질문에 응답함

구도자들과 방문자들이 많이 찾는 곳은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페이지이다. 과거에 찾았던 방문자들이 이 페이지에 열거된 질문들 가운데 몇몇 개를 제기했었다. Mormon.org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이 페이지에는 67개의 질문이 있었다. 그 이후로 23 개의 질문이 추가되었다. 질문들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미디어 자료 또는 선교사 방문 요청, 믿음 및 교리, 사회적 이슈, 교회 관행, 회원 생활 방식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로 나뉘어진다.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매주 사이트에 제출된 상위 25개의 질문을 목록으로 정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은 현재 게시된 질문들에 비추어 그 질문들을 검토한다. 어떤 질문이 자주 제기되지만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질문과 대답을 웹사이트에 추가하는 것을 결정하는 총관리 직원들에게 그 질문이 제출된다.

2004년에 자주 제기되었던 상위 10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몰몬 신앙과 믿음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 지옥, 구원, 영생에 관해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혜의 말씀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어떤 것이 해로운가요? 카페인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음료입니까? 비카페인 음료, 핫초콜릿, 아이스티, 허브 차,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어떻습니까?” “몰몬 교회는 복수 결혼을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복수 결혼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문신, 신체 피어싱, 춤, 데이트, 금

주 등에 대한 여러분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이트는 제 마음이 영을 느끼고 침례를 받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도록 도와 주는 정보를 제게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제가 개종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제이슨 형제는 말했다.

친구들에게 더 많이 듣도록 권유함

회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Mormon.org는 전자 전도용 카드를 포함하여 10가지 형태의 인사말 카드를 영어로 제공한다. 카드 종류에는 영감, 감사, 생일, 위문, 특별한 행사, 가족, 명절, 유머, 성전, 침례가 있다. 각 종류 안에서 방문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역사적 인물의 선정된 인용문에 알맞은 사진을 여러 사진들 중에서 택할 수도 있고, 자신이 만든 인용문을 넣을 수도 있다.

전자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거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여, 가장 관심을 일으키는 복음 주제에 관해 친구들이 더 많이 듣도록 하여 개인 특성에 맞게 소개할 수 있다. 전자 카드를 통한 소개는 보내는 사람의 전자 우편 계정에서 발송되기 때문에 사적이고 개인적이다. 작년에 방문자들은 mormon.org를 통해 196,099장의 전자 카드를 보냈다.

“저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는데, ... 제 인생에서 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미국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카드를 보냈습니다. 정말 멋진 웹사이트입니다!”라고 교회의 새로운 회원인 린 자매는 말했다.

국제적인 사이트

Mormon.org의 내용은 2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언어로 mormon.org는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5 퍼센트 이상을 만날 수 있다.

웹사이트를 다른 언어로 추가 번역하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거주 도시와 국가를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다. 방문자가 요청을 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접속이 증가하면 그 언어로의 번역이 고려된다. 승인이 난 후에는 mormon.org에 있는 대부분의 페이지가 번역된다. 전자 인사말 카드와 무료 자료 요청 페이지의 대부분은 번역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 사이트에 있는 방문자들은 이 페이지를 영어로만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 카드를 보낼 수는 있다. 지난해에 사이트는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3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회원들을 mormon.org로 소개하는 전도용 카드는 28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전도용 카드와 회원 소개 이외에도 구글(Google), 야후(Yahoo), 엠에스엔(MSN) 등 인터넷 검색 엔진은 웹 사용자가 주요 검색어로 “Holy Bible(성경)”이나 “Book of Mormon(물문경)”을 사용할 때 광고 링크로 mormon.org를 보여 준다. 지난해 750,733명의 방문자들이 검색 엔진 추천 링크를 통해 mormon.org를 찾았다.

“정말 훌륭한 사이트입니다. ... 학교에서 한 친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녀는 지금 교회에 관해 공부하고 있으며, 2주 후에 침례받을 예정입니다. ... 이 탁월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웹사이트 방문자인 제니 자매는 말했다.

이해 증진을 도움

Mormon.org는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는 데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칠십인 회장단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Mormon.org가 2001년에 시작되었을 때 그가 이 사이트에 기대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들이 mormon.org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의 출처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기를 바랍니다.”라고 앤더슨 장로는 말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기 위한 자원으로 교회 웹사이트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제언이나 성공담을 cur-news@ldschurch.org으로 보내 주기를 바랍니다. ■

2004년에 Mormon.org에 접속한 국가별 방문자 수	
1. 미국	1,853,865
2. 캐나다	112,849
3. 영국	110,564
4. 브라질	72,587
5. 멕시코	55,885
6. 독일	40,135
7. 프랑스	39,686
8. 호주	39,322
9. 페루	34,726
10. 일본	28,268

2005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5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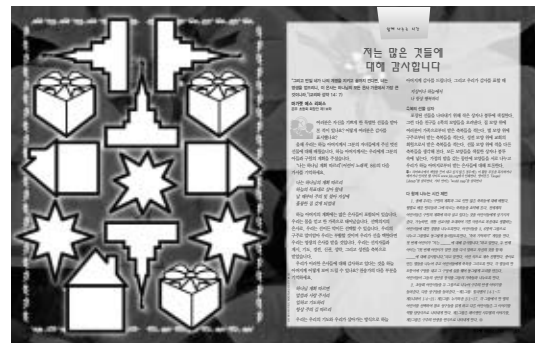
1. 올해 우리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대형 지도를 칠판에 붙이거나 그린 다. 선지자 조셉의 생애에서 중요한 다음의 장소들을 찾아본다. 버몬트 주 샤론, 뉴욕 주 팔마이라,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 뉴욕 주 페이에트,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미주리 주 파웨스트, 일리노이 주 나부, 일리노이 주 카테지.(이것을 또한 시간 연대선을 활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번 호의 친10~11쪽에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중요한 장소들” 참조)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다음 그림들과 글로 적은 참고문을 준비하여 그것들을 종이 봉투에 넣는다. **봉투 1-출생:** 조셉 스미스 가족의 그림, 초등회 그림 패킷 3-7, 조셉 스미스-역사 1:3~4,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 **봉투 2-첫번째 시현:** 복음 그림 패킷 403, 조셉 스미스-역사 1:15~20,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찬송가, 24장); **봉투 3-모로나이:** 복음 그림 패킷 404 및 406, 조셉 스미스 역사 1:29~35, 59; **봉투 4-물론경의 변역:** 복음 그림 패킷, 416, 조셉 스미스-역사 1:61~67, “금판”(어린이 노래책, 61쪽); **봉투 5-신권:** 복음 그림 패킷 407 및 408, 조

셉 스미스-역사 1:68~72, 신권에 관한 노래 또는 찬송가 한 곡.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봉투를 하나씩 준다. 그룹이 참조 성구를 찾아서 토론하게 한다. 각 그룹에게 지도 또는 연대표 위에 그림을 붙이고, 역할 담당극을 하거나 또는 그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고,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였다는 그들의 간증을 키우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게 한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에게: 와드 또는 지부의 성인 회원 한 사람에게 선지자 조셉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한다. 지도, 그림, 노래를 활용하여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 있었던 이런 주요 사건들을 들려준다. 회복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해 간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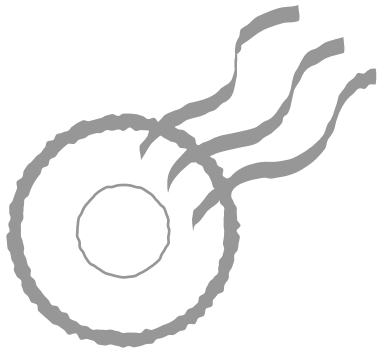
2. 우리는 주님에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능하면, 어린이들이 경전 안에서 감사 또는 감사드림을 찾아보게 한다. 성구를 찾아서 함께 나눌 구절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택할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준다. 몇몇 대답을 받는다. 기도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니파이가 부친과 리아호나에 의지하여 양식을 찾은 다음 감사를 드렸던 니파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니파이전서 16장 21~32 참조) 어린이들이 니파이전서 16장 32절을 찾아 읽게 한다. 여러분도 생활 방식이나 찬양의 노래로써 감사를 표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찬양이나 감사에 관한 수많은 찬송가 또는 초등회 노래

의 제목을 여러 장의 종이에 적는다. 그것들을 적은 부분을 아래로 하여 칠판에 붙인다. 종이 쪽지 위에 사례 연구를 적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너는 수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네 옆에 앉은 사람은 항상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 함으로써 네가 구주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 또는 “네가 정말 좋아하는 텔레비전 쇼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가족 기도를 할 시간이라고 말하셨어. 너는 ... 함으로써 주님에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5~166쪽 참조) 사례 연구를 바꾸니 속에 넣고, 여러분이 감사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바꾸니를 돌린다. 음악을 멈추고, 한 어린이에게 바꾸니에서 종이 하나를 택하고, 그 사례 연구를 읽고 질문에 답하게 한다. 그런 다음 어린이들이 칠판에 있는 종이를 가운데 하나를 떼어 내거나 한 어린이가 선택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노래를 부른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반복한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감사를 나타내고, 또한 어린이들이 구주를 기억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

지난 여름, 푸른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을 닦으며 한국 교회의 신 번째 해를 함께했던 외국인 방문자들은 한국과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역 회장단 사무실로 배달된 한 통의 편지는 그 외국인 방문자 중 하나였던 사이몬즈 자매와 우리 사이의 인연을 담고 있다.



존경하는 고원용 장로님,

제 남편과 저는 이달 초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헌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참으로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그 중 7월 30일 저녁에 열렸던 문화의 밤은 참으로 압권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관전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답고 고무적이며 영감에 찬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노고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모로 보나 품위있고 전문적인 행사였다고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기념 행사에서부터 화려한 의상까지 간과된 부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첫 번째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이신 스펜서 톨러 형제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경험에 대해 강한 애착을 지니셔서 집에서 그 때 일을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한국 공예품과 기념품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밤을 할 때 선교사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고, 만났던 사람들의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제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와 진정 사랑에 빠진 것은 아버지께서 한국 민요인 아리랑을 불렀을 때라고 하십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어떤 국가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할 때마다 한국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그 언어, 음식,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어릴 때부터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조상이 스위스와 영국, 이탈리아계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약간 한국인처럼 생겼

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 아버지가 2년 반 동안 김치를 많이 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해 줍니다.

나중에 제 남편이 될 카일 사이몬즈 형제가 1986년 서울에서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기뻐 하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그곳에서 지냈던 날들을 회상하곤 합니다. 사이몬즈 형제와 결혼한 후 17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과 선교 사업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와드 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과 훌륭한 한국인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올 여름에 열린 대규모 기념 행사와 귀환 선교사 모임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기쁜 한 주 동안 장로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커다란 축복이라 느낍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년 전 봉사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게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이 멋진 여행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밤 및 한국 지역 대회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계획과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난 저희의 감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아,
앤지 톨러 사이몬즈



한국을 방문한 사이몬즈 자매 가족. 왼쪽에서 두 번째가 편지를 쓴 사이몬즈 자매다. 맨 왼쪽에 있는 사이몬즈 형제와 맨 오른쪽에 있는 톨러 형제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다.

2005년 하반기 한국 지역 스테이크 대회 세계 최초 현지 위성 중계



설날에 올었던 까지 소리가 하늘에도 들렸을 듯하다. 지난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던 제일 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이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2005년 10월 30일, 한국 지역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한국 교회의 시발점인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위성을 타고 전국 22개 집회소에 모인 만여명 회원들과 함께했다.

대 회 날 아침, 연단 앞에 가득히 피어난 꽃 너머로 한국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는 신권 지도자들의 밝은 얼굴이 성도들을 반겼다. 감리자인 넬슨 장로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에번즈 장로 부부, 제2보좌 고원용 장로 부부, 부산 스테이크 양기욱 회장,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부부, 한국 선교사 훈련원 홍무광 원장 등이 자리를 나란히 했다.

축복과 감사와 권고의 말씀들이 대회장을 가득 채우면서 회원들의 눈과 귀는 점점 연단을 중심으로 모였다. 넬슨 장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며 “나라의 보물”인 자녀를 복음 안에서 충실히 양육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모두는 그 내부에 신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세상의 구주로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임을 알려 주십시오. ... 구주의 생애를 이해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서 가졌던 사명을 가르치십시오... 경전의 축복을 이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 자녀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데 합당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성전 의식이 교회에서 주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도록 가르치십시오. ... 젊은이들이 선



위: 통역을 맡았던 로버트 할리 형제와 한국 관리 본부 번역사 김갑수 형제, 아래: 연단에 꽃을 장식하는 연산 와드 최희숙 자매.



이 날 모임은 위성으로 전국 22개 집회소에 중계되었다.



대회 찬송을 부르는 회원들.

교사로 봉사하기를 권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고 꼭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에 대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느끼십시오. ...

자녀들에게 십일조의 축복을 가르치십시오.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 자녀들이 교육을 받도록 가르치십시오. ... 한국의 아름다운 자녀들. 이 국보들을 공경하고 가르치십시오. ...”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현지 위성 중계된 이번 대회는 여러 형제, 자매들의 수고로 무사히 치뤄졌다. 2년에 한 차례는 제일 회장단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하는 말씀을 위성 방송으로 함께 듣는 합동 스테이크 대회를 하겠다는 교회 정책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모임이 있었다. 이번 한국 스테이크 대회가 다른 대회와 다른 점은 현지에서 모임을 하고 그것을 전국에 생중계한 것이다. 위성 방송 기술 덕에 전국 17개 스테이크와 5개 지방부에서 한국 전역 회원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연사의 말씀을 함께 보고 느꼈다. 이를 돕기 위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본부에서 위성 방송 관련 기술진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도자들과 회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교회 통역사들과 회원들의 자원 봉사로 매꿔졌다.

한편, 회원들이 앉아서 가슴에, 공책에 연사들의 말씀을 새기는 동안 대회장 한 칸에서 10명 형제, 자매들이

선재로 이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날 장내 정리를 맡은 안내자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이었던 금정 와드 전석우 형제는 “처음엔 고3이란 압박감에 안내자 역할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특별한 모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좀 더 영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넬슨 장로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즐거워했다.

대회의 감동은 한국 전역에서 똑같았다.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강명옥 자매는 “넬슨 장로님이 직접 감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곁에 지도자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라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고,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에서 합창을 준비한 화양 와드 양정휴 형제는 이번 대회가 연차 대회처럼 느껴졌으며 “뜻 깊은 자리에서 노래로 주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민병숙 기자, 장효정 기자, 전건우 기자)



넬슨 장로와 함께한 특별 모임

2005년 10월 30일 오후 다섯 시,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학 극장에서 넬슨 장로와 함께한 특별 모임이 열렸다. 부산, 대구, 마산 등 경상남북도 전 지역에서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원과 선교사들, 구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에번즈 장로 부부와 제2보좌 고원용 장로 부부, 서울 서 선교부 링우드 회장 부부가 함께했다. 넬슨 장로는 회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전했고, “모든 가정에 경전이, 성전 사진이, 찬송가가, 리아호나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라며 축복을 약속했다. 부산 지역 회원들은 석 달 전부터 준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합창곡을 선사해서 모임에 빛을 더했다. 선교사 훈련원 입소를 열흘 앞두고 합창을 한 광안 와드 이의환 형제는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기쁨은 그 어떤 휴식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합창이 제 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저를 보다 더 잘 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며 그 간의 수고를 감사로 돌렸다.(전건우 기자)

아름다운 사람들

군인 박종진 형제

젊은 사병이었던 박종진 형제는 장교가 되고 싶었다. 시험에 합격하고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박 형제의 소망을 버리게 했다. 계속되는 훈련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제대 후 고향인 대구에 내려 온 박 형제는 지역 향토 방위 훈련을 지휘하는 군무 사무관으로 다시 군복을 입었고, 서른 해에 가까도록 그는 군인이다.

대구 근처 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영천에 지부가 생기고, 중리 와드가 조직되고, 대구에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박종진 형제는 지부 회장, 감독, 스테이크장단으로 봉사하며 항상 고향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있었다. 거의 모든 모임에서 합창을 해 온 박 형제는 5년 전부터 ‘대구 남성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음악은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 전문가들이 대부분인 합창단에 들어가 교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 동기였다.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소망대로 스테이크 합창단을 지휘하며 아내와 고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다.

전차 부대에서 복무할 때, 끝까지 담배 피우기를 거부하겠냐고 상사가 얼굴에 들이댄 대검을 보며, 신앙 때문이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까지 대

검 앞에서 버텼다는 박 형제 이야기가 군부대 전체에 퍼져서 그 후로는 어느 누구도 그의 표준을 책잡지 못했다. 탱크 위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생각에 잠기던 박 형제. 지금은 동료들 중 반 정도가 커피를 자제하고 있고, 예비군을 교육할 때는 서론에서 항상 가족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밝게 웃는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며 간증하는 박 형제의 얼굴에서 정직한 감사함을 읽을 수 있다.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인천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5,000여 명 조상들에게 침례를 베풀다

올 해 여름, 모든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이를 백 배 더 행복하게 보낸 인천 스테이크 60여 명 청년, 청년들은 성전에 모여 5,233명 조상들에게 대리 침례를 베풀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문화의 밤 공연에 참여하지 못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 절기를 축하하고, 성전 사업을 통해 개개인의 간증을 강화하여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한다는 목적 아래, 지난 1월부터 대리 침례 5,000명이란 목표를 가지고 성전에 모인 것이다. 이는 50주년 행사 약 일주일 전인 7월 23일에 모두 완료되었다. 지도자들은 7개월 동안 한 데 모였던 아름다운 마음들을 간증집으로 엮었는데 청소년들의 이야기에서 침례복처럼 순결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 교회 50주년을 맞은 것은 큰 축복이다. 이 날에 단순한 방문자이기보다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포기하고 기꺼이 주님의 집을 방문했다. 침례는 마치 생일과 같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차례를 위해서 손뎌 기다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다.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주님께 감사 드린다.

대리 침례를 준비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자매가 되기 위해 평소에도 표준 복장을 지키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 마음이 가슴에 잔잔히 남아있다. 이제 곧 오실 고든 비 힝클리 선지자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부평 와드 길의진 자매)

“2005년 7월 23일”

이번에 대리 침례가 있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저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5,000명 중 마지막 250명이라고 하셔서 나에겐 뜻깊은 경험일 것 같았다. 금식도 하고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티코에 일곱 명이 타고 성전에 오면서 도로 한 가운데 차가 멈추는 등 여러 황당한 사고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전에 도착했다. 침례를 받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이 뛰고 뜨거우며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난 이것이 내가 대리로 침례를 받아드리는 분들의 느낌과 “침례를 받아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라는 것을 안다. 난 이 교회가 이 지상에 하나 밖에 없는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안다. (계산 와드 정준우 형제)

“모두 한 마음으로 너도나도 참여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길영권 인천 스테이크 회장은 의로운 목표를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모였던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힐라맨의 용사들처럼, 새하얀 침례복을 입고 성전에서 기쁨과 간증을 얻은 1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삶에 즐거운 승리가 계속되길 소망한다. (조현아 기자)



청계천에 닿은 도움의 손길

10월 22일 토요일, 서울 청계천에 200여 명 성도들이 모였다. 서울 경기 지역 형제, 자매들은 이 날 두 손이 맞잡은 모양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도움의 손길” 봉사 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서울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두 시간여 동안 주변 쓰레기를 치웠다. 평소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청계천에서 회원들이 도움의 손길 활동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조끼 뒷면에 쓰인 교회 명칭의 뜻을 물어왔고, 회원들의 표정과 행동이 그대로 교회의 얼굴이 되었다. 공보 위원회 위원장 최석구 형제는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며 봉사 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을 격려했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가족 가치관상 시상식

지난 10월 30일,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제1회 가족 가치관 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상은 올바른 가족 가치관 정립을 위해 힘쓴 지역 사회인들에게 교회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수상자는 이근호 박사와 이동원 박사였다. 정신의학자 이근호 박사와 사회학자 이동원 박사는 부부로서 함께 가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10여 년 동안 지역민과 공공 기관들을 방문하여 건전한 가족 문화에 대해 교육하고 여러 연구를 지원해 왔다. 또한 4대가 같은 집에 살며 가족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근호 박사는 “가족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저희보다 더 심도 있게, 전세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가족 가치관을 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 날 이근호 박사와 이동원 박사는 상패와 가족 선언문, 그리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는 모습을 표현한 도자기를 받았다. 한국 공보 위원회에서는 매년 이들 수상자들과 같이 사회에서 가족

가치관을 알리는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할 계획이다.(판스워드 자매 기사 제공)



민혜기 장로에게서 상을 받는 수상자들. 맨 왼쪽이 이근호 박사, 그 옆이 이동원 박사.

리아호나 구독 증진 프로그램



살아 계신 선지자의 귀중한 메시지를 담은 리아호나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이와 리아호나를 나누기 위해 구독 증진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현재 구독이 끝나지 않았지만 만료 기간을 2006년 12월로 조정한 후 1년을 연장하신 분(원래 만료 기간이 2005년 12월인 경우, 1년 구독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구독을 신청하신 분, 증정용 리아호나를 1부 이상 신청하신 분에게는,

1.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저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2. 마조리 페이 힝클리 자매의 저서 “작고 단순한 것들”

두 권의 책을 각각 회원가 5,000원 대신 3,000원에 드립니다.

신청 문의: 한국 관리 본부 2232-1441(내선 번호 541)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각 와드, 지부로 발송될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나온 출판물

복음 참고서 “신앙에 충실함”

가나다 순으로 엮인 복음 주제들을 배경 지식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풀이한 책. 제일 회장은 이 책 첫 장에 “청소년, 독신 성인, 그리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냈으며, “정규적으로 기도하고 경전과 복음 교리를 연구하는 것은 ... 악한 영향력에 맞서는 준비가 된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가격: 1,000원

DV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도마의 이야기를 따라 재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기적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국어 번역판.

가격: 5,000원

구입처: 성전 가먼트 센터(직접 판매), 배부센터(우편 판매)

힝클리 회장 부부가 보내는 작고 단순한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기에 이웃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책 두 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STAND A LITTLE TALLER 한국어 판)

저자: 고든 비 힝클리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매일 우리 삶을 가꾸어 줄만한 주제와 경전 구절, 힝클리 회장의 짧고 힘있는 말씀을 엮은 책. 손바닥만한 종이에 적힌 365개 글들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줄 고리가 될 것이다.

“작고 단순한 것들” (SMALL AND SIMPLE THINGS 한국어 판)

저자: 마조리 페이 힝클리



싱그러운 자연을 담은 사진과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포착한 힝클리 자매의 짧은 이야기들을 모았다. 허리를 숙여 작은 행복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을 지닌 책.

* 더 자세한 사항은 공보 위원회의 공문과 포스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 위원회 02-2232-1441(내선 번호:363)]

새로 부름받은 복지 선교사



지난 11월 1일, 김용일 장로와 박재향 자매가 새로운 복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 두 선교사는 현재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에 참석하면서 김 장로는 스테이크

축복사로, 박재향 자매는 유아반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부산 동구 지부에서 개종하여 동구 지부 지부장과 서울 스테이크 회장을 역임했던 김 장로는 “모든 회원은 영적으로나 현재적으로나 자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2년 동안 복지 선교사로써 회원들을 도울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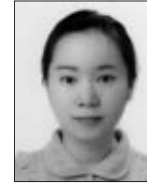
장은정 자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최한나 자매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서울 서 선교부



장한나 자매
아보초포드 스테이크
칠리 웨드
대전 선교부



박정매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이문 지부
템플 스퀘어 선교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77기(13명)



김강석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신세계 장로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노명찬 장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대전 선교부



오재웅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오륜 와드
부산 선교부



박라헬 자매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부산 선교부



이범열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대전 선교부



설미진 자매
창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선교부



이왕룡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대전 선교부



신선영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부산 선교부



이의환 장로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대전 선교부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부산 서 지방부
청소년 표준의 밤 (9월 24일)
- 부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 (10월 3일)
- 안양 스테이크
독신 합동 성찬식 (10월 21일)
독신 체육 대회 (10월 15일)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체육 대회 (10월 3일)
청소년 표준의 밤 (10월 22일)
상호부조회 “가을맞이 여성 대회” (11월 5일)
- 수원 스테이크
스테이크 체육 대회 “행복한 사람들의 활동의 날” (10월 3일)
-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선교사 훈련 수료식 (10월 23일)
중앙 와드 대회 “가장 아름다운 3일” (9월 30일~10월 2일)
- 대전 스테이크
허광희 형제 선행이 조선 일보에 실리다
에번즈 장로와 함께하는 특별 모임 (10월 1일)
-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지역 독신 성인 활동 모임
“깊어가는 가을의 사랑이야기” (10월 22일)
- BYU 238 와드 승격, 해외 두 번째 한인 와드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감독: 김덕호(전임: 정재원)